

연구논문

한국인의 상향적 관계 형성 전략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trategic Networking on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in Korea

임자은^{a)} · 김석호^{b)}

Jaeun Lim · Seokho Kim

이 연구는 한국사회 공동체의 형성 원리에 대해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자원과 정보가 흐르는 공간이며, 한국인은 여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해 줄 가능성이 높은 인맥을 찾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합리적 전략에 따른 공동체 참여가 발현하는 대표적인 집단(또는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임을 확인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수와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에의 참여에 관계맺기의 전략적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 관계 지향 여부, 즉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과 연결을 하고자 하는 전략적 성향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사람들이 여러 집단 또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위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전략적 관계맺기 또는 인맥쌓기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 사람들은 연고집단과 여가모임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두 집단에의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은 개인의 전략적 성향이다. 셋째, 종교집단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5463).

a)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김석호.

E-mail: seokhokim@snu.ac.kr.

참여 메커니즘은 연고집단과 여가모임의 그것과는 다르다. 물론 상향적 관계 맺기 전략이 종교집단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더욱이 연고집단과 여가모임 참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 사회경제적 요인이 종교집단 참여에서는 동일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넷째, 본 연구의 모형에 통제된 요인들 중 성별이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연결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연결망의 이면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연고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일반 신뢰보다는 사적 신뢰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은 사적인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연고 집단과 여가모임에 참여한다.

주제어: 연결망, 공동체, 자발적 결사체, 연고집단, 전략적 네트워킹, 합리성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network construction mechanisms that lead Koreans to participate in voluntary associations. By applying a multiple regression and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examine why Koreans actively join voluntary associations. Koreans tend to regard voluntary associations including old-boy school networks, recreational groups, and religious groups as instrumental and emotional communities. We found that Koreans decide to participate in voluntary associations with the expectation that those associations function as potential networks beneficial to their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terest. First, the result revealed that an individual's social network is structured largely through their own intention, not least by desire to connect to people in higher status. The finding is particularly meaningful as it indicates that people actively and deliberately cultivate their social networks and strategically embed themselves in advantageous positions. Second, the results indicate that alumni and recreational groups are used as a conduit for Koreans in forming their connections. Lastly, religious groups seemed to play a peculiar ro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religious groups are largely different from those of alumni and recreational associations.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network, community, voluntary associations, strategic networking

I. 서론

한국인의 삶에서 가족, 친구, 이웃, 마을 등 일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의 중요성은 인문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한상복 2015). 한국사회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인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 평소에 어떤 이유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위안을 얻는가에 따라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달라진다(이민아 2013; 한준·김석호·하상웅·신인철 2014). 공동체는 개인적 행복을 넘어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사회의 질이 경제적 조건과 더불어 시민사회 역량, 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통합 등 공동체의 핵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Yee & Chang 2011). 공동체의 범위와 유형, 기능과 역할, 그리고 측정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인의 삶에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합리적 기반의 근대성이 빠르게 확산된 것에 비해, 근대성의 기본 정신과 가치라 할 수 있는 개인성이 문화적 문법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김경동 2007; 정수복 2007; Bellah 1985). 근대화로 인해 물질적 풍요와 합리적 제도를 갖추게 되었지만, 생활세계는 여전히 집합 규범과 집단 논리의 영향력 하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의 가치와 이해 추구를 위해 조직된 합리적 기반의 사회적 관계라기보다는 개인에게 미리 주어진 실체이자 집단 문화의 구성물로 이해된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는 협소하고 특수화된 연고를

바탕으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러한 동질성 때문에 집합 규범과 집단 문화가 재생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최재석 1977; 김경동 1992; 정수복 1996, 2007). 이 비판의 근거에는 근대성과 개인성 간 괴리가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집합적 문화에 대한 성찰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공동체의 전반적인 모습이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와 같이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연결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실과 그 부정적 결과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왜 그러한 공동체 분포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못한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체를 전통의 전승이나 주어진 집합적 실재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왜 한국사회의 공동체가 집합 규범과 집단 문화에 친화적인 모임, 단체, 조직들로 채워지게 되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인은 어떤 집단에 무슨 이유로 참여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공동체 형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 공동체의 철학적,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 차원을 모두 고려한 답변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관찰되는 공동체의 전근대적 구조(또는 지도)를 개인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합목적적인 이유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한국사회 공동체가 단순히 집합 규범과 집단 문화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공동체의 거시적 특성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취한 합리적 전략으로 만들어지고 강화되고 고착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본 연구는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도구적 또는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찾는 것이며, 그러한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공동체에 더 참여하고 활동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해관계가 있고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Lin 1999). 그 관계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자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위해 공동체 참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회과학에서 공동체는 개념적 및 경험적 모호함으로 인해 친숙하지만 가장

어려운 연구주제이다. 한국의 공동체 연구는 이론적 논의나 경험적 규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연구자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회단체와 조직,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을 대상으로 삼고, 이로부터 공동체의 소멸과 존속을 논하거나 그 효용과 결과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연고집단, 온라인 게임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생활체육회, 여가모임, 직능단체, 노조,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은 서로 성격과 목적, 그리고 활동 영역을 달리하지만 모두 공동체 연구의 범위 안에 있다. 물론 본 연구도 이러한 이론적 및 경험적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는 무엇이고 그 측정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공동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위에서 한국인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핵심적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공동체를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정의를 일종의 이념형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 모임, 조직, 연결망 등을 찾아 관찰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에서 드러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 공동체가 개인의 가치, 취향, 이해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동원에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공동체는 생활세계의 친밀성에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 교차와 중첩이 발생하는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연결망이라고 간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에 가장 부합하면서 포괄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연결망이 자발적 결사체라고 주장한다. 자발적 결사체는 목적, 이해, 가치, 신념, 취미, 배경 등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탈퇴가 가능한 조건에서 결성한 단체 또는 모임이다. 서구에서 자발적 결사체는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통로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친목모임부터 종교단체와 정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자발적 결사체가 포함된다. 한국사회에서도 연고집단, 종교단체, 여가모임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Kim 2016). 따라서 합리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 결사체가 정서적이고 도구적인 공동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사회적 지지, 경제적 지원, 정치적 후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한국사회 공동체 형성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한국사회 공동체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이며, 경험적인 연구가 가능한 가시적인 공동체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인은 어떤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집합적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인이 종교집단, 여가모임, 연고집단 참여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왜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집단에 대한 참여로 귀결되는가?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사회 공동체의 보편성과 특수성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동체는 사회과학에서 그 정의가 불분명한 채로 연구자마다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는 20세기 초반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immel 1907; Park 1922).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하나는 공동체의 소멸과 존속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다른 하나는 근대화 과정에서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공동체 기능의 변화에 천착한다. 전자에 속하는 연구들은 근대 이후 공동체가 소멸했는지 아니면 존속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는데, 공동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측은 공동체를 전근대적 전통이며 근대화에 의해 무너진, 그리하여 현대적 제도와 사회로 대체되어버린 개념으로 정의한다. 공동체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은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휴머니티의 구현으로 보고 보편적인

실체로써의 공동체를 강조한다(Delanty 2003; Isin 1999). 한편 후자에 속하는 연구들은 공동체의 기능과 유형에 주목한다. 일부는 공동체 내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나 상호작용 원리 등과 같은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유형화하여 새롭게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Brint 2001; 이선미 2008; 전병재 2002). 또는 현대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된 가족의 해체, 개인주의의 확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공동체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김미영 2015; 김혜경 2017; 장수정 2012).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사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며, 그 목적은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두 관점-소멸과 존속의 이분법적 관점과 공동체가 행하는 기능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 공동체 논의의 특징은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경험적 규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를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복원해야 하는 ‘무엇’으로 상정하는 낭만주의(romanticism)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선미 2008). 공동체는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지켜야 하는 전통이나 고도화된 경쟁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강대기 2001). 그렇다고 한국사회에서 공동체가 실체 없는 상상적 허구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동체는, 개념적 모호성에서 불구하고, 빠른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해진 공공 영역과 사회적 인프라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Kim & Lim 2017).

공동체는 한국인의 삶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재하는 현실로써 꾸준히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한국사회에서 사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는 공적인 영역과 표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적 영역에서 결핍한 역할을 대신하는 사적 영역의 보루로 간주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공식적 제도나 조직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한국인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창, 종교단체, 모임 등 비공식적 연고에 바탕을 둔 사회적 지원에 의존한다(Kim & Lim 2017).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구축된 사회적 관계는 공적의 영역에서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는 집합적 수준에서 복원해야 하는 미덕이자 공적인

영역에서 봉착한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그려지곤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공동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삶의 위안을 주는 필수품으로 이해된다(한준 외 2014;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한국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공동체 연구에서 드러난 개념적 모호성과 경험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상술했던 한국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그와 가까운 실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즉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자원 동원에 효과적이고, 두 영역 간 교차와 중첩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공간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가장 가까운 실체를 자발적 결사체라고 본다. 즉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경험적 증거로 자발적 결사체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는 목적, 이해, 가치, 신념, 취미, 배경 등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전제로 결성한 단체 또는 모임으로 정의된다(Hooghe 2003). 여기에는 친목모임부터 종교단체와 정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사체가 포함된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Kim 2016). 특히 연고집단, 종교단체, 여가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인은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친목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 등 필요한 자원을 얻으며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적인 영역과 소통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비정치적인 연고집단, 종교단체, 여가모임은 가장 정치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김영범·이기원·안동규 2010; 유재원 2000; Kim, 2016). 이는 자발적 결사체를 사회자본과 경제자본을 취득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개념화한 부르디외나 퍼트남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Bourdieu 1977; Putnam 1993).

한국인이 자발적 결사체를 자원 동원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논의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사체주의(Hirst 1993)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토크빌(Tocqueville)은 자발적 결사체가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흐르는 장이자 시민사회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동력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자발적 결사체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 자원의 동원과 분배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Kim 2016). 결사체의 특성인 가입과 탈퇴의 자율성과 자치성, 그리고 내부에 존재하는 호혜성의 원칙은 민주주의적 원칙을 수호하고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연대와 결속을 촉진하여 정교하고 강력한 연결 통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자발적 결사체에 관한 기존 연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정치적 결사체(정당, 노동조합 등) 참여와 비정치적 결사체(동창회, 동호회, 여가모임 등) 참여는 모두 한국인들의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기여한다(Kim 2011; 도묘연 2017).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가 한국인의 삶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인지하는 가장 가깝고 실질적인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한국인은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사적 및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목적을 추구하며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자발적 결사체란 ‘우리’라는 집합적 결속을 통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해 주고, 공적 영역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자원들을 얻게 해주는 연대의 연결망이며, 실질적인 공동체이다.

2. 사적 및 공적 공동체로서의 자발적 결사체

한국사회 공동체의 실제 모습에 자발적 결사체가 가장 근접한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개념적 모호성과 경험적 근거 제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한국인의 공동체가 생활세계에서 가지는(또는 가져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찾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한국인이 어떤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에 얼마나 참여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의 수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두 번째 질문을 다루어보자. ‘한국인은 왜 종교 집단, 여가모임, 연고집단에 집중해서 참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간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고집단과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자발적 결사체)가 조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다. 한국인은 동창회, 향우회, 여가집단 등의 비정치적인 모임부터 시민단체, 정당, 정치모임과 같은 정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사체에 참여하며 살아간다(최재석 1977; 정수복 2007).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한국인이 정치적 통로로 정치적 결사체-시민단체 또는 정당-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제해 왔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시민단체나 정치모임 등의 정치적 결사체들은 구성원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폐쇄성과 교류의 제한성 때문에 대다수 한국인의 연결망이나 사회적 지원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Kim & Lim 2017;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Kim 2011).

반면 한국인은 비정치적 자발적 결사체인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에는 매우 활발하게 참여한다(Kim 2011).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동창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김지범 외 2016). 종교단체에의 참여율도 25%를 웃돈다. 연고와 종교, 사회인구학적 배경, 그리고 취향을 바탕으로 여가모임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도 한다. 반면 시민단체와 정치단체에 하나라도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5% 남짓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김지범 외 2016). 다시 말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정치 모임이나 단체의 역할은 미미하며, 오히려 비정치적 자발적 결사체 - 특히 동창회, 여가모임, 종교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는 한국의 연고집단을 한국사회의 질적 도약을 가로막는 청산해야 할 구습 정도로 다루고(이재열·남은영 2008), 종교집단을 전 근대적인 신념과 가치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여가모임에 대해서도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교양을 쌓는 문화교실 정도로 여긴다. 또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동호회나 산악회처럼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운동을 하는 비정치적인 일상적 관계로 이해한다. 그러나 연고집단은 한국인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며(김지범 외 2016), 자원을 찾거나 획득하는 사회연결망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이다(정병은 2007, Kim 2016). 그러므로 한국인은 연고집단에서 정보와 기회를 얻고, 정치토론을 하며, 집단적인 정치행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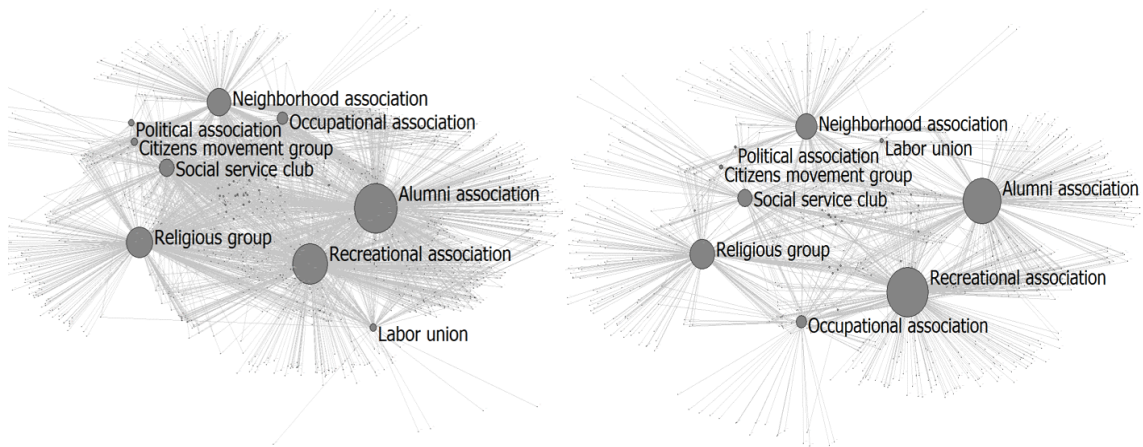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인에게 연고집단이란 삶의 여러 국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원의 플랫폼과도 같은 집단일 것이라 가정한다. 한편 종교집단 또한 단순

히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을 넘어, 사람들이 인적, 물질,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자원을 얻는 장소이며, 종교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복지와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전명수 2012). 많은 종교집단들이 자본주의에 의해 압도되어 잃어버린 공공성을 대신 회복하고자 한다(유병무 2016). 이들의 정치참여 또한 활발하다(박병진·김병수 2013; Kim 2011). 여가모임도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영향력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연고집단이나 종교집단과 마찬가지로이다. 더욱이 여가모임은 생활체육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적 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여가모임은 사적인 연결망과 공적인 조직 간 교차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여가모임 내 사회적 관계는 연고집단 내 사회적 관계와 중첩의 정도가 높다(Kim & Lim 2017). 요약하면, 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온 연고집단과 종교단체, 취미 및 교양 모임으로 인식되는 여가모임은 실상 한국인이 정서적 위안을 얻고 도구적 필요를 충족하는 공동체이다(Kim & Lim 2017).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가 갖는 기능의 중요성은 특히 한국인의 생활세계에서 두드러지고 있음이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Kim 2016; Kim & Lim 2017).

Kim & Lim(2017)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 3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의 시민사회가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그 중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민사회 조직 간 연결망의 중심에 동창회와 여가모임, 그리고 종교집단이 위치한다. <그림 1>은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 간 연결망을 보여주는데, 왼쪽의 그림은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간 연결망을 가입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오른쪽의 그림은 단순한 가입을 넘어 실제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결망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결의 밀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왼쪽과 오른쪽 모두 동창회가 가장 중심에 있으며 여가모임과 종교단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세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가 한국인의 삶의 중심에 있다.

세 유형 간에 차이가 있다면, 동창회의 경우 가입만 하고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종교단체와 여가모임의 경우 가입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종교단체와 여가모임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고집단이 가입인

원에 비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적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고집단은, 가령 동창회, 종교단체와 여가모임에 비해 모임 횟수나 교류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임원이나 운영진이 아니면 활발하게 활동할 여지가 많지 않다. 연고집단에서의 활발한 참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 활동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연고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출신학교나 출신지 그 자체는 인맥이 되고(이재열·남은영 2008), 연고집단 내 인맥은 평소에는 잠복해 드러나지 않다가 필요할 때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자본이다(김우식 2006).



〈그림 1〉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가입 연결망(좌)과 활동 연결망(우)을 통한 시민사회

출처: Kim & Lim. 2017. The Structure of Civil Society: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nections of Associational Memberships in Korea, Japan, and China. Working paper.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얻는 결론은 한국인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자발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는 한국인이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하게 갖는 공동체이자 한국사회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잡은 소위 ‘인맥’의 연결망이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주도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에 관한 담론 또한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도, 특히 기존에 친목도모 집단 등으로만 여겨졌던 동창회를 포함하는 연고집단, 개인적 차원의 신앙 활동의 장으로

인식되는 종교집단, 취미와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여가모임 등이 실제로는 정치단체나 시민단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사회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내포하여야 할 것이다.

3. 공동체 구성의 합리적 기반: 상향 연결망 구성 전략과 인맥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루어보자. ‘한국사회 공동체의 형성 원리는 무엇인가?’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시장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에 핵심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고 정부와 시장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발적 결사체는 어떤 원리로 형성되는가?’ ‘Kim & Lim(2017)의 연구에서 드러난 연고집단, 종교집단, 여가모임 중심의 자발적 결사체 연결지도는 왜 그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나?’

이 질문에 답하는 쉬운 방법은 개인 수준에서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시한다(김영범·이기원·안동규 2010). 소득이나 학력, 직업지위, 결혼여부, 성별 등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좌우하는 요인이다(Sampson 1991).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이 ‘왜’ 공동체에 참여하며 ‘어떻게’ 개인적 수준의 참여 이유가 현재 공동체의 전반적 분포와 구조로 이어졌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공동체가 개인의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이 섞이고 축적됨에 따라 형성되는 미시적 수준의 참여 이유와 거시적 수준의 공동체 연결망 특성 간 관계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사회와 같은 동아시아 사회의 맥락에서는 공동체의 형성이 집합적 수준의 규범과 문화적 문법에 의해 주어지거나 조각된 결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최재석 1977; 김경동 1992; 정수복 2007).

그러나 사람들의 공동체 참여 동기에는 집단의 규범적 압력과 사회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추구와 같은 합리적 선택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Batson, Ahmad & Tsang 2002). 서로 다른 유형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받는다(Wellman

& Wortley 1990).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합리적 필요에 의해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며(Yue 2015),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연결망을 만들고, 유지한다(김우식 2001; 김용학 1996). 즉, 개인의 합리적 전략이 연고집단, 종교단체, 여가모임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로의 참여를 촉진한다.

여기서 개인의 합리성이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에 가장 적합한 -이성적 판단에 기초하였으며 이해할 수 있고 분별력 있는, 그래서 남들이 동의할 만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imon 1978). 본래 합리성은 경제학에서 ‘최적화(optimize)’와 같은 맥락으로 다뤄지는 개념이며 베버는 이것을 근대사회를 전근대사회와 구별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는 목적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을 구분하며 전자를 목적을 얻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 그리고 후자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리한다(Weber 1978).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발달은 목적 합리성을 극대화시켰으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합리성 또한 이와 유사하다.

한국의 자발적 결사체도 근대화와 산업과 과정을 거치고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생활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이고 도구적인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 공동체는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규범 아래 유지·존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열망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역사를 거쳐 축적된 집합적 경험의 결과물이자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여전히 이를 집합적 관점과 비합리적 인정,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에 치우쳐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Sampson 1991).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공동체 형성의 원리 중 하나인 개인의 합리적 전략 또는 합리성 추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도 개인의 합리성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결사체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원리도 개인의 합리적 필요와 의도적 전략에 의해 작동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기회와 자원 중 많은 부분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교류되며, 자발적 결사체가 한국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만

들고 시민사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은 소위 ‘인맥’으로 불리는 관계망을 만들고 존속시키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며 부단히 노력한다. 한국인은 자원 획득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인맥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목적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인맥은 학연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 등 비정치적 자발적 결사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구조가 형성되는 데에는 이러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적 전략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합목적적 동기가 있는 사람이 지역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선점하고 있는 연고집단, 종교단체, 여가모임에 참여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의 연결망은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은 자발적 결사체에 각자의 필요에 의한 합리적 전략에 따라 참여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해관계가 있고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Lin 1999). 그것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사회에서나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한다(Marsden 1988; McPherson, Smith-Lovin, and Cook 2001).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관계의 형성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자 공동체 참여를 선택한다. 즉 자신과 비교했을 때 관계를 맺는 상대의 지위가 더 높은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개인의 관계 형성의 합리적 전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즉 합리성에 기초한 관계 형성 전략을 운용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공동체 참여 수준이 높을 것이며, 특히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집단 활동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상이 적중한다면, 전체 사회의 공동체 간 연결구조, 시민사회의 전반적 모습, 공동체의 현대적 역할과 기능 등을 결정하는 미시적 기반이 개인의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관계 맺기’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자료와 측정, 분석방법

1. 자료와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개인의 전략적 관계 성향이 개인의 공동체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2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에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그 후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해 온 대표적인 시계열 조사이다. 특히 2012년 조사는 여러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데 매년 실행하는 반목모듈과 더불어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에 관한 ISSP 모듈,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동아시아 4개국 조사인 EASS모듈, 인터넷과 SNS 사용 및 중독,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한 특별모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ASS모듈에 포함된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12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다단계 지역 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통해 추출된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표본으로 하였다. 조사된 표본 수는 1,396이며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 수는 1,363이다.

2. 변수와 측정,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발적 결사체(공동체) 참여이다.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의 EASS모듈은 각각 9가지 유형의 공동체[정치모임, 주민협회 및 반사회, 사회봉사 클럽,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 종교집단, 연고집단(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여가모임, 노동조합, 직업거래 단체]에의 참여 여부를 포함한다. 해당 문항은 응답자들이 각각의 9가지 공동체에 대해 3가지 척도-1) 구성원이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구성원이지만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3) 구성원이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구성원이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2) 구성원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두 가지 선택지에 응답한 경우를 1, 3) 구성원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이 각각의 아홉 개 문항을 모두 더해 몇 가지 유형의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지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최솟값은 어느 공동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 0이며, 최댓값은 모든 유형의 공동체에 가입해 있는 경우로 9이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개인의 관계전략이 개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숫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또 다른 종속변수로 한국인이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공동체이자 시민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자발적 결사체인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의 참여 여부를 설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관계 형성 전략이 각각의 세 단체에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변수를 이용하여 세 단체에 관해 각각 참여를 1, 비참여를 0으로 하는 더미 변수를 만들고, 이것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상향적 관계 지향 여부의 경우, Lin(1999)이 제시한 포지션 제너레이터(position generator)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포지션 제너레이터는 직업군을 그 권위, 명성,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한 후, 계층별로 해당 지인이 존재하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Lin(1999)은 이것을 사회적 자본의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많은 연구들이 이 지표를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념화하여 사용하였다(Tindall, Cormier, & Diani 2012; Van Der Gagg & Snijders 200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인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모듈 또한 이 지표를 통해 응답자의 사회적 자본에 관해 묻고 있다. 설문 문항은 ‘귀하 주변에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이며 10 가지 직업군이 보기로 제시된다. 응답자는 이에 대해 ‘있다’또는 ‘없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문항을 사용하여 10개의 직업을 각각 국제표준직업분류기준(ISCO-88)으로 나누어 직업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에 대해서도 각 응답자가 어느 직업지위에 속하는지 분류하여 직업지위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자기 자신보다 직업지위가 높은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낮은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숫자로 세어,

높은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낮은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차감하였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직업지위에 의한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해당 값의 평균을 산출한 후 평균값보다 높은 경우를 상향지향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것을 토대로 상향지향의 성향을 가진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이 변수를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¹⁾

통제변수에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종교여부, 학력, 고용형태, 가계소득, 거주 지역, 자녀 수, 현재 거주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개인의 직업지위를 포함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자본의 주요한 요인인 두 종류의 신뢰 - 일반적 신뢰와 사적 신뢰 -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일반적 신뢰 문항은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으며 응답자는 이에 대해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중 하나로 대답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를 4점, ‘항상 조심해야 한다’를 1점으로 하는

1) 이 같은 변수 생성 방식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응답자의 직업지위보다 높은 직업지위를 가진 지인도 그 차이의 정도에 있어서 지인마다 다를 수 있다. 즉 약간 높은 지인과 매우 높은 지인이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자와 지인 간 직업지위의 차이 정도는 방향성만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는 포착이 불가능하다. 둘째, 상향관계 지향 더미 변수는 응답자의 직업지위보다 높고 낮은 관계의 상대적 크기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맥의 넓이,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의 요소는 평가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독립변수와 관련된 이러한 의문을 연구의 한계로 수용하면서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상향관계전략의 변이를 담고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변이의 한 단위가 가지는 의미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경우는 변이의 정도가 하향지향으로 크고 직업위세가 가장 낮은 경우는 상향지향으로 매우 적을 것이다. 반대로 직업위세가 중간에 있는 경우 상하 모든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변이의 한 단위마다 자발적 결사체 가입 확률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방향성에 따라 해당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타당한 지적이기는 하나 분석자료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의 변수를 일반적 신뢰 변수로 사용하였다. 사적 신뢰의 경우 친구에 대한 신뢰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설문 문항은 ‘다음 사람들을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응답자는 이 중 ‘친구’에 관해 4점 척도(1=매우 신뢰, 2=다소 신뢰, 3=별로 신뢰하지 않음, 4=전혀 신뢰하지 않음)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변수를 역코딩하여 사적 신뢰 변수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지위의 경우 1988년 제정한 국제표준직업분류인 ISCO-88(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응답자들의 직업을 고위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그리고 블루칼라 노동직의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더미 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현재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현재 직업(취업자)과 최근 직업(실직자, 은퇴자, 무직자)에 대해 질문한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현재 직업에 대해 답하며 과거에는 일했지만 현재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가장 최근의 직업에 대해 답한다.

IV. 분석결과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당시 표본의 약 44.2%가 남성이고 59.4%가 기혼자였으며 약 59.7%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19.4%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4년제 대학 학위는 없지만 대학교육을 경험한(중퇴/재학 중/전문대) 응답자는 17.8%,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27.2%,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35.6% 이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50.4세, 평균 자녀 수는 2.0명이었으며, 23.5%가 대도시에, 22.9%는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다. 36.2%의 사람들의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하였으며, 30.2%는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의 가계소득 수준을 보였고, 가계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33.5% 가량이 었다. 20.5%의 사람들이 당시 살고 있는 지역에서 5년 미만 거주하였으며, 13.0%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1.0%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하였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시간을 당시 거주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14.7%였고, 30.8%의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5% 가량의 사람들이 고위직에 속하였고, 15.9%가 전문직, 8.7%가 사무직에 속했다. 서비스직은 약 15.6%로 나타났고, 블루컬러 직군은 38% 정도였다.

〈표 1〉 변수들의 빈도분포

(단위: %)

변수	응답범주	비율	변수	응답범주	비율
관계지향	상향	34.9	성별	남자	44.2
	비상향	65.1	결혼여부	기혼	59.4
동창회	참여	47.9	가구소득	소득 없음	1.6
여가모임	참여	38.8		50 만원 미만	11.7
종교단체	참여	29.4		50 만원-100 만원 미만	8.0
종교	있다	59.7		100 만원-150 만원 미만	8.2
같은지역 거주기간	1 년 미만	4.8		150 만원-200 만원 미만	6.8
	1 년 3 년 미만	7.6		200 만원-250 만원 미만	8.7
	3 년-5 년 미만	8.1		250 만원-300 만원 미만	6.2
	5 년-10 년 미만	13.0		300 만원-350 만원 미만	9.5
	10 년-20 년 미만	21.0		350 만원-400 만원 미만	5.7
	20 년-30 년 미만	14.7		400 만원-450 만원 미만	8.1
	30 년 이상	30.8		450 만원-500 만원 미만	2.6
거주지역	대도시	23.5		500 만원-550 만원 미만	5.8
	대도시 주변	22.9		550 만원-600 만원 미만	1.5
학력	4 년제 이상 졸업	19.4		600 만원-650 만원 미만	4.1
	4 년제 미만 대학경험	17.8		650 만원-700 만원 미만	1.3
	고등학교 졸업	27.2		700 만원-750 만원 미만	2.3
	고졸 미만	35.6		750 만원-800 만원 미만	0.7
직업	고위직	5.0		800 만원-850 만원 미만	1.5
	전문직	15.9		850 만원-900 만원 미만	0.5
	사무직	8.7		900 만원-950 만원 미만	0.5
	서비스직	15.6		950 만-1,000 만원 미만	0.1
	블루컬러	38.0		1,000 만원 이상	4.6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

(단위: 개, 세, 명, 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유형 수	1.90	1.80	0	9
연령	50.38	18.12	18	95
자녀 수	2.03	1.65	0	9
사적 신뢰	3.28	0.63	1	4
공적 신뢰	2.30	0.75	1	4

독립변수인 상향관계 지향 여부의 경우, 자신보다 높은 직업지위에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는 상향지향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약 34.9%,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 65.1% 정도로 나타났다.²⁾ 종속변수인 개인의 공동체 가입 다양성의 경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9개 유형의 공동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1.8,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0 과 9 로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7.9%가 동창회에, 1/3이 넘는 38.8%가 여가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1/3에 조금 못 미치는 29.4% 가량의 사람들이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표 2>는 각각 변수들의 빈도분포와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3>은 사람들의 관계전략이 그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숫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1은 독립변수인 관계전략이 종속변수인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숫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2는 모형1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결혼여부, 종교여부, 자녀 수, 같은 지역 거주기간, 거주 지역, 학력, 가구소득, 직업을 통제하여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3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더불어 개인의 참여 공동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인 개인의 사회적 신뢰에 관한 변수(일반 신뢰와 사적 신뢰)까지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2) 앞서서도 밝힌 것처럼, 본 연구는 상향관계 지향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ISCO-88의 분류기준을 활용하였으며, ISCO-88은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직업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유효 응답수가 취업자 수보다 더 많다.

<표 3>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숫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³⁾

	모형 1	모형 2	모형 3
_상수	1.666***	0.043	-0.482
관계전략(상향=1)	0.678***	0.494***	0.486***
연령		-0.008 [†]	-0.007
성별(남자=1)		0.472***	0.461***
결혼 여부(기혼=1)		0.405***	0.411***
종교(있음=1)		0.727***	0.728***
자녀 수		0.055	0.052
거주기간		0.074**	0.070*
대도시		0.027	0.007
대도시주변		-0.002	-0.017
학력: 4년제 졸 이상		0.312	0.300
학력: 4년 미만 대학		0.168	0.149
학력: 고등학교 졸업		0.477**	0.474**
가구소득		0.032**	0.031**
고위직		0.465 [†]	0.480 [†]
전문직		0.589**	0.578**
사무직		-0.121	-0.121
서비스직		0.003	-0.010
블루칼러 노동자		0.172	0.152
사적 신뢰			0.205**
일반 신뢰			-0.053
<i>N</i>	1,363	1,363	1,363
<i>R</i> ²	0.032	0.171	0.176
<i>Adj. R</i> ²	0.032	0.160	0.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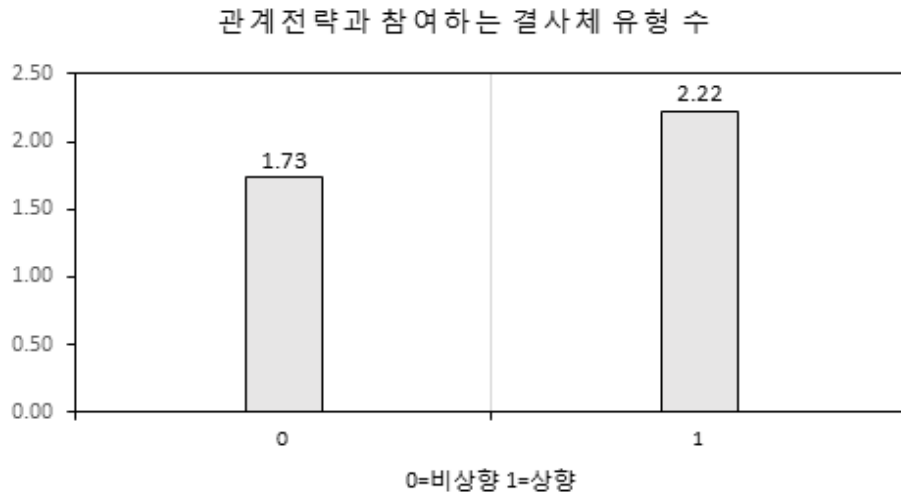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3) 독립변수인 관계전략 변수 생성에 활용된 질문이 “귀하 주변에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이므로 친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친척의 경우 ‘의도적’인 상향관계지향의 대상으로 이해하기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대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별첨에 20대를 제외한 분석결과를 수록했으며, 그 결과는 20대를 포함한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계전략이 상향인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수가 더 많다(계수=0.678 $p<0.001$). 인구통계학적 변수(계수=0.494, $p<0.001$)와 사회 신뢰 변수(계수=0.486, $p<0.001$)를 통제할 경우에도 그 영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자신보다 높은 직업지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한다. 같은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할수록 더 많은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유형의 수가 많았으며, 개인이 가진 사적 신뢰의 수준 또한 자발적 결사체 종류 숫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눈여겨 볼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전략적 성향이 함께 작용한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연결망이 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비단 종교단체에만 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유형의 수 자체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한국 사람들에게 종교가 가지는 의미는 신앙 추구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넷째, 개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력은 대학교 졸업 여부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위직이나 사무직은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전문직은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유형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발적 결사체를 사회적 관계의 수단으로 더 활발히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신뢰가 자발적 결사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기저에는 심리적 요인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회 전체

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보다는 친밀감과 개인적 유대감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2〉 관계전략에 따른 참여하는 결사체 유형의 수 평균

〈그림 2〉는 앞서 <표 3>에서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통제변수들의 값을 모두 평균으로 고정하였을 때 관계전략이 상향(=1)인지 또는 비상향(=0)인지에 따라 각각 평균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전략이 상향인 사람들의 경우 평균 2.22개(표준편차=0.08)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며 관계전략이 비상향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73개(표준편차=0.06)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다.

<표 4>는 한국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한국인들의 연결망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사회의 기제로서 역할을 하는 세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인 연고집단, 여가모임, 그리고 종교단체 참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개인의 관계전략과 다른 통제변수들이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 각각에의 참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향지향적 관계전략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고집단에 참여할 확률(계수=0.409 $p<0.01$), 여가모임에 참여할 확률(계수=0.477 $p<0.001$), 그리고 종교단체에 참여할 확률(계수=0.279 $p<0.1$)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집단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기혼

<표 4> 연고집단, 여가모임, 그리고 종교단체 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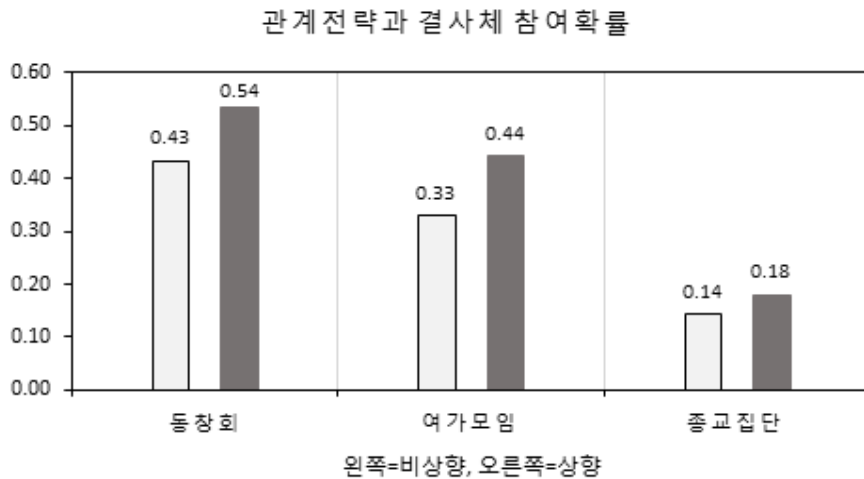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
_상수	-2.347***	-1.997***	-5.511***
관계전략(상향=1)	0.409**	0.477***	0.279 [†]
연령	-0.013*	-0.009	-0.001
성별(남자=1)	0.678***	0.488***	-0.035
결혼 여부(기혼=1)	0.751***	0.255 [†]	0.005
종교(있음=1)	0.110	0.204	3.991***
자녀 수	-0.080	-0.078	0.103
거주기간	0.095*	0.031	0.001
대도시	0.232	-0.109	0.235
대도시주변	0.049	0.044	0.382*
학력: 4 년제 졸 이상	0.341	0.654**	0.976**
학력: 4 년 미만 대학	0.207	0.533*	0.597*
학력: 고등학교 졸업	0.714***	0.634**	0.626**
가구소득	0.040**	0.047**	-0.023
고위직	0.666 [†]	0.617 [†]	0.303
전문직	0.549*	0.480*	0.311
사무직	-0.075	0.126	-0.441
서비스직	0.118	0.000	-0.011
블루칼러 노동자	0.018	0.167	0.084
사적 신뢰	0.276**	0.203*	0.191
일반 신뢰	-0.080	-0.147 [†]	0.020
<i>N</i>	1,363	1,363	1,363
Log-likelihood	-816.1	-810.8	-591.5
Pseudo <i>R</i> ²	0.135	0.109	0.284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이 미혼보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참여 확률이 높았으며, 전문직인 경우에도 연고집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가구소득, 그리고 사적 신뢰 수준도 연고집단 참여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여가모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 그 참여확률이 더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4년제 미만의 대학교육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이 모두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여가모임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여가모임도 연고집단과 마찬가지로 사적 신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경우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작은 도시나 시골 마을, 또는 외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종교단체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여가모임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4년제 미만의 대학교육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각각이 모두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종교단체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주목해 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 모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개인의 사회적 관계전략이 참여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고집단과 여가모임과는 달리 종교단체에는 그 영향이 미미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상향관계 성향은 종교단체에의 참여보다는 연고집단과 여가모임에의 참여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고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요인은 대학교 졸업 여부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여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제시한,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유형 수를 분석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동창회와 같은 연고집단이 출신 대학보다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셋째, 여가모임의 참여에는 대학 졸업여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여부와 함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고집단과 여가모임의 참여여부에는 소득과 사적 신뢰가 영향을 미쳤으나 종교참여에는 이들 요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거주 지역은 종교에의 참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고집단과 여가모임 참여는 비슷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종교단체 참여는 위의 두 집단과 다르다.



〈그림 3〉 관계전략에 따른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집단에서의 참여 확률

〈그림 3〉은 앞서 제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는 사람들의 관계전략이 상향인지 비상향인지에 따라 각각 동창회(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집단에 참여할 확률을 보여준다. 관계전략이 상향인 사람들이 연고집단에 참여할 확률은 54%로 비상향인 사람들(43%) 보다 11%p 가량 높다. 여가모임에는 상향 지향적 관계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44%의 확률로 참여하며 비상향의 사람들(33%)보다 역시 11%p 가량 높다. 마지막으로 종교집단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계전략이 상향인 경우 18%, 비상향인 경우 그보다 4% 가량 낮은 14%의 확률로 종교집단에 참여하고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형성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공동체가 갖는 핵심적 기능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자원과 정보가 흐르는 공간이며, 한국인은 여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해 줄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관계, 즉 인맥을 찾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공동체 참여 동기는 도구적이고 합목적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개념 규정을 했을 때 한국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동체의 실체는 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합리적 전략에 따른 공동체 참여가 발현하는 대표적인 집단(또는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수와 연고집단, 여가모임, 종교단체에의 참여에 관계맺기의 전략적 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력 또한 드러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적 관계 지향 여부, 즉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과 연결을 하고자 하는 전략적 성향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사람들이 여러 집단 또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위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전략적 관계맺기 또는 인맥쌓기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 사람들은 연고집단과 여가모임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두 집단에의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 역시 개인의 전략적 관계 성향이다. 셋째, 종교집단 참여 메커니즘은 연고집단과 여가모임의 그것과는 다르다. 물론 상향적 관계맺기 전략이 종교집단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더욱이 연고집단과 여가모임 참여에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 사회경제적 요인이 종교집단 참여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넷째, 본 연구의 모형에 통제된 요인들 중 성별이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연결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연결망의 이면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연고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일반 신뢰보다는 사적 신뢰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은 사적인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는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연고집단과 여가모임에 참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유형의 수를 분석했으나 이것이 실제로 개인이 몇 개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여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유형인 여가모임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

다. 그러나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의 다양성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숫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계전략이 결사체 참여 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결사체에 많이 참여하다보니 관계전략 값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한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요인들이므로 분석의 타당성이 자료의 특성에 의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한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종교단체는 다른 두 집단-연고집단과 여가모임-과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 하였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한국인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종교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 논문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의 상향관계전략의 효과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발적 결사체가 가지는 정서적 및 정신적 만족이나 여기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기쁨 때문에 참여를 결정하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논문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상향관계지향의 효과를 부각시켜 부분적인 설명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자발적 결사체 참여의 대안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의 경험적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남겨둔다.

공동체에 대한 담론들은 대부분이 그 존재증명 또는 부재증명에 관한 것이거나(김미영 2015) 공동체의 대안적 기능을 제시하고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시에 주목하는 것들이다(Delanty 2003).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에 비해 경험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며(Sampson 1991; Brint 2001) 일부 연구들이 특정 공동체를 살펴본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동체 담론들이 공동체를 공간 및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일종의 자명한 사회적 실체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김종일 2006)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 간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특성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례연구 또한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 즉 형성 이후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기존 공동체 연구가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

다. 어떤 연구들은 구성원들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거나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해 관찰을 하고, 다른 연구들은 특정 단체 명부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활용하거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다. 자료수집 방식이 반드시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공동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적 및 경험적 시도들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공동체를 그 기능과 역할에 의해 정의하고 이에 가장 가까운 실체를 관찰하여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는 전략은 앞서 지적한 공동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극복하려는 작은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 김경동. 2007.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김경동. 1992. 《한국인의 가치관 사회의식》 박영사.
-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이론》 27: 181-218.
- 김상욱·문용갑·신승배·김지범. 2012.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석호. 2016.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와 시민성.” 편저. 이내영·윤인진. 2016. 《한국인의 정체성》 103-135. 동아시아연구원(EAI).
- 김영범·이기원·안동규. 2010.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지역 사회자본 신활력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학》 12(1): 111-130.
- 김용학. 1996. 《사회구조와 행위》 사회비평사.
- 김우식. 2001. “구조와 전략의 쌍대성: 연결망 구조와 통제 행위의 한 연결방식.” 《한국사회학》 35(5): 63-90.
- 김우식. 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 비도덕성을 생성하는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0(5): 29-60.
- 김종일. 2006.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2):57-69.

- 김지범·강정환·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최슬기·김솔이.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55-198.
- 도묘연. 2017.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10(2): 5-41.
- 류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사회사상과 문화》 17: 203-269.
- 박병진·김병수. 2013. “사회균열의 축으로서의 종교: 종교 간 가치 및 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7: 221-252.
- 유병무. 2016.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17.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3-259.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47(4): 171-200.
- 이선미. 2008.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 42(5): 101-139.
- 이재열·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7): 178-214.
- 장수정. 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1-31.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 46(5): 289-322.
- 정병은. 2007. “향우회 사회자본과 지역주의: 재경 안동향우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 1-28.
- 전명수. 2012. “종교와 사회복지의 접점 -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활동의 실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89-303.
- 전병재. 2002. “공동체와 결사체.” 《사회와 이론》 1:49-78.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생각의 나무.
- 정수복. 1996. “한국인의 모임과 미시적 동원맥락.” 《경제와 사회》 29:102-125.
- 최재석. 197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 한준·김석호·하상웅·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한상복. 2015. “왜 다시 마을인가?” 한국마을학회 창립식 기조강연. 춘천.
- Batson, Daniel, Nadia Ahmad, and Jo - Ann Tsang. 2002. “Four Motives for Community Involv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8(3): 429-45.
- Bella, Robert. 1985. *Habit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Harper & Row.
-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nt, Steven. 2001. “Gemeinschaft Revisited: A Critique and Re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Concept.” *Sociological Theory* 19(1): 1-23.
- Delanty, Gerard. 2003. *Community: Key Ideas*. London, UK: Routledge.
- Durkheim, Emile. 2013(1957). *Professional Ethics and Civic Morals*: Routledge.
- Hirst, Paul. 1993. *Associative Democracy*. Oxford: Blackwell.
- Hooghe, Marc. 2003. “Voluntary Associations and Democratic Attitudes: Value Congruence as a Causal Mechanism.” pp. 89-111 in *Generating Social Capital*. Springer.
- Isin, Engin F, and Patricia K Wood. 1999. *Citizenship and Identity*. Sage.
- Kim, Seokho. 2011.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 and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3): 125-154.
- Kim, Seokho. 2016. “Quality of Civil Socie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ISSP Countries.” *Development and Society* 45(1): 113-150.
- Kim, Seokho and Jaeun Lim. 2017. “The Structure of Civil Society: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nections of Associational Memberships in Korea, Japan, and China.” Working Paper.
- Lin, Na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1): 467-87.
- Marsden, Peter. 1988. “Homogeneity in Confiding Relations.” *Social Networks* 10(1): 57-76.
- McPherson, Miller., Lynn Smith-Lovin, and James Cook.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415-444.

Park, Robert Ezra. 1922. *The Immigrant Press and Its Control*. Harper & brothers.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Sampson, Robert J. 1991. "Linking the Micro-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Social Forces* 43-64.

Simmel, Georg. 2004. 1907. *The Philosophy of Money*. Psychology Press.

Simon, Herbert A. 1978.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16.

Tindalla, D.B., Jeffrey Cormier, and Mario Diani. 2012. "Network Social Capital as an Outcome of Social Movement Mobilization: Using the Position Generator as an Indicator of Social Network Diversity." *Social Networks* 34: 387-395.

Tönnies, Ferdinand. 1887. "Community and Society." *The Urban Sociology Reader* 13.

Van Der Gaaga, Martin. and Tom A.B. Snijders. 2005. "The Resource Generator: Social Capital Quantification with Concrete Items." *Social Networks* 27:1-29.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Univ. of California Press.

Wellman, Barry and Scot Wortley. 1990. "Different Strokes from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3): 558-88.

Yee, Jaeyeol and Dukjin Chang. 2011.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Development and Society* 40(2): 153-172.

Yue, Lori Qingyuan. 2015. "Community Constraints on the Efficacy of Elite Mobilization: The Issuance of Currency Substitutes during the Panic of 1907."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0(6): 1690-735.

부록

<부표>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 숫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0대 제외)

	모형 1	모형 2	모형 3
_상수	1.695***	0.166	-0.290
관계전락(상향=1)	0.770***	0.526***	0.515***
연령		-0.011*	-0.011*
성별(남자=1)		0.511***	0.508***
결혼 여부(기혼=1)		0.358**	0.349**
종교(있음=1)		0.830***	0.828***
자녀 수		0.055	0.052
거주기간		0.076*	0.072*
대도시		-0.033	-0.050
대도시주변		-0.035	-0.050
학력: 4년제 졸 이상		0.246	0.229
학력: 4년 미만 대학		0.116	0.111
학력: 고등학교 졸업		0.419**	0.411**
가구소득		0.039**	0.037**
고위직		0.387	0.366
전문직		0.655**	0.602**
사무직		-0.114	-0.166
서비스직		0.014	-0.039
블루칼러 노동자		0.165	0.105
사적 신뢰			0.223**
일반신뢰			-0.067
<i>N</i>	1,144	1,144	1,144
<i>R</i> ²	0.040	0.193	0.199
<i>Adj.R</i> ²	0.039	0.180	0.185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